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뽑은

대전시 중심관광지 버스로도 갈 수 있나요?

관광지 간 연계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이동이 활발한 관광지의 버스 접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2024년 **중심관광지**<sup>1)</sup> 데이터와 대전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의 2024년 정류장 승·하차 이용정보<sup>2)</sup> 데이터를 분석했다. 대전시 상위 중심관광지별 반경 500m 범위 내<sup>3)</sup>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수, 버스 승·하차 및 환승 인원 자료를 활용해 대전 주요 관광지 25개소<sup>4)</sup>의 교통 접근성을 ‘복합형’과 ‘차량 중심형’으로 구분했다.

주1: 중심관광지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도출한 차량 이동 기반의 타 관광지와 연계 방문하는 빈도가 높은 중심(Hub) 관광지를 의미하며, 차량 이동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연계 방문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버스 단말 등을 통해 수집된 소통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정한 기간별 선택한 정류장의 승하차 및 환승 인원을 집계  
주3: 보행교통 실태조사 시 조사 대상 구간은 버스정류소를 포함한 구간으로 도로권을 고려해 500m 내외로 하는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조사대상구간)에 따라 반경 500m로 설정함. 반경 500m의 기준점은 관광지 주소로 검색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함  
주4: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도출한 중심관광지는 자연관광, 문화관광, 역사관광, 쇼핑, 숙박, 레저스포츠, 기타관광 유형으로 구성됨. 본 분석에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도출한 중심관광지 상위 50곳 중 숙박 유형과 문화관광 유형의 영향권을 제외하고, 대전시에서 대전관광영사로 지정한 주요관광지 및 쇼핑 장소만을 선별해 분석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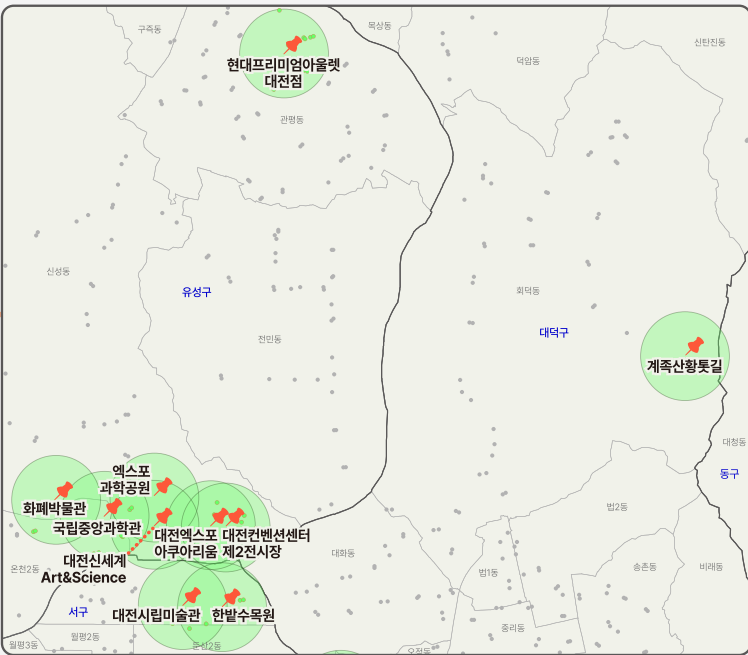
“도심 건강지는  
버스로 갈 수 있는데  
자연관광지 가려면  
차 있어야 해요”

반경 500m 내  
버스정류장이 많은 관광지

대전중앙시장  
갤러리아백화점  
한민시장

도심 상업지역 또는 유동인구 밀집  
중심시기에 위치해 대중교통 인프라 밀집

중심관광지 기준 반경 500m 내 버스정류장



- 대전시 중심관광지
- 중심관광지 반경 500m 내 버스정류장
- 대전시 버스정류장
- 대전시 중심관광지 반경 500m

반경 500m 내  
버스정류장이 없는 관광지

계족산 황토길  
상소동 산림욕장  
장태산 자연휴양림  
식장산 전망대

산지, 임야 등 외곽지역의  
자연관광지로 차량 중심의  
방문이 활발한 관광지

“대전 중심관광지  
교통 접근성 유형 분석:  
차량 중심형 vs 복합형<sup>5)</sup>

대전시 내 차량 이동이 활발한 중심관광지 25곳을 대상으로 차량 이동 기반 방문 빈도가 높은 중심관광지별 버스 이용량(승·하차, 환승 인원)의 상대적인 교통 접근성 유형을 분석했다. 2024년 기준 연간 평균 버스 이용량은 2,109,136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관광지는 '복합형(차량 및 버스접근성 좋음)', '차량 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차량 중심형 관광지의 낮은 버스 이용량은 외곽 위치나 환승의 불편 등 접근성 문제뿐 아니라, 도심 관광지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이동 선호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이나 쇼핑 목적 등으로 차량 이용이 선호되며, 자가용 보유자는 버스 이용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중심형 관광지의 교통 개선은 단순한 접근성 향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 목적과 이동 방식에 맞춘 유연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5: 위 유형화 결과는 25개소 중심관광지 간 상대적인 비교 수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화에는 유의가 필요함

대전 중심관광지 교통 접근성 유형 분석 결과<sup>5)</sup>

